

“출판사·종단·불자 힘모아 출판 살리자”

‘불교출판 현황과 전망’ 토론회 주요내용

장기적인 불황으로 날로 악화되어 가는 불교출판의 현실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불교출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7월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불교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는 최근의 출판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5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시열 대표(도서출판 운주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불교출판인들은 현재 출판시장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불서읽기 운동 전개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양서 발간 ▶교구본사의 도서관 설치와 사찰 북카페 신설 ▶도서거래형태 개선 ▶디지털 시대의 대응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세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불교출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불교출판 불황, 원인은

사실 불교출판 위기는 지난 십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교출판 시장이 심각한 불황을 겪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불교출판인들은 불교계의 ‘책 안 읽는 풍토’를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든다. 민족사 윤창화 대표는 “잡선이나 마음공부만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 속에서 불자들이 책을 도외시하는 풍토를 답습하고 있다”며 “심지어 출·재가를 막론하고 책을 읽으면 알음알이가 생겨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늘날 책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축소된 것도 출판 불황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교사대사 고광영 편집부장은 “문화산업의 토대이자 지적산업의 가치척도였던 책은 이제 하나의 공산품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정보 습득의 매개체였던 책이 이제 영화와 인터넷 등 영상 디지털 매체에 그 역할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토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각 분야별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책 안 읽는 풍토 속에서 살아 출판사

남기 위해 출판사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당연하게도 정답은 출판사나 필자들이 불자들에게 ‘읽을만한 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많은 불자들이 ‘불서’라고 하면 어렵다는 인식을 먼저 갖게 되고, 실제로 일부 출판사들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펴내기보다 번역물 출간에만 주력하고 있다.

‘출판기획’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형근 동쪽나라 대표는 “불교계 출판사들도 일반 출판사 경영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편집과 디자인, 유통 등의 분야에서는 전문 외주시스템을 도입하고 출판사들은 다양한 기획 시리즈

물 출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자들의 요구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기획출판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가 본 불교출판의 현실과 전망’을 발표한 고광영 편집부장은 “불교계에는 아직 기획출판과 대중적 글쓰기에 능숙한 인재양성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 아무리 좋은 책이 출간된다 하더라도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판매 역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서적 출판의 현실과 전망’을 발표한 윤주사 임희근 대표는 최근의 불서 판매 현황을 소개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임 대표는 “불서 판매의 70%를 차지하는 불교

불서읽기 운동 전개 눈높이 양서 발간 교구본사에 도서관 설치

서적의 경우 사찰의 매장이 그 중 45%를 차지한다”며 “이 같은 수치를 볼 때 사찰이 문서포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사찰에서는 불교용품과 불서를 함께 진열 판매하거나 전문 서점을 개설하거나 ‘북 카페’ 같은 공간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차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 대표는 불교 서적이 도외시 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일반 서적의 양분화 된 판매순위 집계를 지적했다.

“일반 출판사에 발간된 불교 관련 서적은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일반책(비소설 분야 등)으로 집



7월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불교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는 50여명의 출판 관계자가 참석해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계됩니다. 당연히 불교서적은 전체 판매비율에서 줄어들고, 이는 곧 도서 전시공간과 판매대의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교전문서점 역시아론 조동규 부장은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경쟁적인 할인판매나 끼워 팔기, 경품행사를 벌여 출판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가 실시된 후 출판사와 대형서점, 할인마트 등이 변칙적인 영업행태로 군소 서점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출판사에서 정상유통이 어려운 책을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여는 등 불서를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 각 서점들이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도서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관광사찰에 북카페를 도서공급 창구 일원화 전국 서점 정보 공유해야

●●●● 출판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자들도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영업자가 본 불교출판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도서출판 불광 허성국 영업부장은 “불서의 판매부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출판사들간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종단 차원의 독서캠페인 전개와 종단 및 본사의 도서관 건립, 도서전시회 등의 이벤트 실시 등 문서포교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출판사 스스로 도서공급을 확충하고 일반 서점에 대한 불서공급을 일원화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불교사대사 이규만 영업부장도 도서공급 일원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부장은 “오늘날 대형 서점에 밀려 군소 서점들은 문을 닫거나 잘 팔리는 책만 진열하고 있어 불서는 독자들에게 ‘보여지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불교출판사들이 공동으로 대형서점과 거래하는 등 공급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사 생재영 영업부장은 “기존의 대표자 중심의 ‘불교출판협의회’를 불교출판에 종사하는 편집자, 영업자, 서점 등의 포괄적 모임체인 ‘불교출판인모임’으로 발전시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 ‘불교출판의 미래와 전망’을 종단 발표한 민족사 윤창화 대표

는 “오늘날 불교출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불교출판인들은 보다 좋은 출판물을 기획해야 하고 필자들은 가능한 우리말로 쉽고 간명하게 책을 써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 범종단 차원의 독서운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각 종단의 총무원이나 본산, 또는 규모 있는 사찰에서는 반드시 도서관을 설치해 불자들이 쉽게 불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님들은 법회 때마다 양질의 책을 선정해 책 읽기는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자 필독서’ 50~100여권 선정, 체계적인 신도교육 실시와 불서의 적극적으로 활용 등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윤 대표는 9월부터 독서운동인 ‘초심자를 위한 불서 읽기 모임’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1주일에 한번씩 모여 부처님의 생애를 비롯한 불교교리, 입문서, 개설서 등 기초적인 불서를 읽는 모임으로, ‘불서 읽기 운동’의 불씨를 지피는 화석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정리=이수영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운 책



■ <인도성지순례>(우학 스님 글/사진, 좋은인연, 2만7천원)=영남불교대학·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이 글과 사진으로 엮은 인도성지순례기.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동산을 시작으로 열반의 땅 쿠시나가라까지 8대 성지를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의 모습과 감상이 담겨 있다. “여행은 곧 인생”이라는 스님은 “부처님의 땅 인도성지순례는 여행 가운데 최고의 여행이었다”고 회상한다.

■ <부처님 찾아가는 예절>(영산 스님 지음, 증명출판사, 1만원)=절은 왜, 어떻게 하는 것일까? 법회에 참석하거나 공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 초심자나 ‘베테랑’ 불자도 가끔 잊기 쉬운 것이 사찰 예절이다. 이 책은 법회 때와 사찰에서 생활할 때, 조문을 갔을 때 등의 상황에서 지켜야 할 불자로서의 예절을 소개하고 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 준다.

■ <羅이이야기>원윤영 지음, 여래, 8천원)=화두를 들어 일으키는 곳에서 알아맞히려 하지도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고, 또한 깨닫기를 기다리지도 말라.<<선가귀감> 중 <입제록> <나옹록> <수심결> 등 선사들의 선어록과 경전에서 100여 개의 화두를 가려 담았다. 책 뒤편의 ‘선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선의 의미와 역사, 다양한 선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2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3	동양사상 CD	탄허 스님	교보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정화 스님	이문아침
5	스님이야기	지복 스님 외	여시야문
6	참회·참회기도법	김현준	효
7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8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이용범	사회재
9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10	불교가 좋다	개원해오리	동아시아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최대의 공간선 전문영송!

건강 선사님의 인가계자인 대원 문제현 선사님이 역제한 <마로보인 선문영송> 전 30권 중 제 5권 출간 1,454쪽의 본 공간, 매 책마다 쿼모임을 후원하며 공간 탐구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30년 한결 같은 도반, 월간 불광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월간「불광」은 30년간 불자님 결을 지켜온 가장 오래되고 자부심 높은 불교잡지입니다.

http://www.bulkwang.org

구독신청 문의 420-3200

한국 선사의 시집

경훈스님 영문 선시집

LIVING PEACE

살아 있는 평화

세계최대인터넷서점 아마존닷컴 (amazon.com)에서 최고점인 별 5개를 받아 화제

저자 경훈스님은 “몇해 전 맑은 마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에서 수시로 떠오른 선상(禪想)을 시집으로 정리했는데 이번에 영문으로 번역하게 됐다”며 이 책을 통해 영어문화권에서 불교와 동양사상,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IRIS 출판사 초청으로 10일간 오리건 주를 방문하고 귀국한 경훈스님은 “출판 후 며칠만에 서구 독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 의외다”며 “물질문명에 갇혀있는 서구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은 강로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자 경훈스님(약사사 조실)

한글 선시집
아시게나, 우리가 선 이명이 낙원이리네

역사 비평사 간
2001년 12월 2권으로 출간된 책에서 선별하여 영역함.

경훈 스님의 선시를 풀이한 혜당 스님(담양 금타선원)이 미국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를 역임할 때 인연 맺은 출판사 대표 모리스 박사의 원력으로 출판됐다.

국제포교사 이추경
경훈 스님의 선시를 영문으로 번역 (87년 미국 오하이오주 미아미대학 환경과학 석사, 91년 2년간의 환경운동) 번역서 출판

선시집 구입문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약사사 061-453-2422 • 전남 담양군 수북면 오정리 금타선원 061-382-7819